

정읍사에서 되새기는 '사랑의 의미'



제34회 정읍사문화제가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정읍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문화제 개막식. <정읍시 제공>

28~29일 정읍사문화제...백제 여인 설화 토대 스토리텔링 축하공연·불꽃놀이·정읍사퍼포먼스 '러브판타지쇼' 등 다채

백제시대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제34회 정읍사문화제'가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정읍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정읍사문화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백제가 요인 '정읍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정읍사 여인의 아름다운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34년간 지속하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정읍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다.

이번 문화제는 제29회 시민의 날과 함께 기념식을 진행한다.

문화제가 펼쳐지는 정읍사공원은 문화제의 주제인 '전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정읍사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해 공간을 구성했다. 설화를 토대로 한 망부선이 공원을 지키고 있고, 정읍사 이야기, 사모정, 사랑의 계단 등이 조성돼 있어 가족

과 여인이 특별한 추억을 쌓기에 좋다.

첫날인 28일은 정읍사 여인을 추모하고 부부와 가족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체수의례와 정읍사 여인제례 등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체수의례는 정읍사 서사의 배경인 정해마을에서 맑은 샘물을 걷는 의식이다.

여인제례는 지아비를 기다리다 망부석이 돼버린 정읍사 여인의 마음을 달래는 제사 형태의 의례다.

이후 시립예술단의 공연과 기념식, 축하공연이 이어지고 불꽃놀이와 정읍사퍼포먼스가 펼쳐지는 '러브판타지쇼'가 진행된다.

이튿날인 29일은 국내 최장수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가 진행된다. 이날 녹화에서는 예심을 통과한 15개 팀이 나서

노래실력과 장기를 뽐낸다. 조항조, 김혜연, 박현빈, 트윈걸스 등도 출연해 흥겨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신인가수들의 동용문인 정읍사가요제 가수들 꾸미는 이들의 열정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박상철, 김태연 등 신인가수들이 출연해 축제의 마지막날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축제 기간 동안 농특산물·간식·먹거리 부스 운영하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며 11월12일까지 정읍사문화공원 일원에 아름다운 경관조명을 전시해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1300여년전 정읍사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이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정읍을 방문해 내장산 단풍과 다양한 행사를 즐기면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소중히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남원시 지적측량 오차 해소

지적공부, 국제표준 세계측지계로 변환...일제 잔재 청산도

남원시가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좌표 변환을 완료함에 따라 오차 없는 지적측량이 가능해졌다.

남원시는 기존에 사용하던 지적공부상의 '동경측지계'를 국제표준 측지계인 세계측지계로 변환 완료했다고 밝혔다.

세계측지계란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위치기준 측지계를 말하는 것으로 좌표계의 원점이 특정 지역이 아닌 지구 중심을 사용하는 지구중심계 좌표로서 전 세계 국가들의 형상과 거의 일치해 지역적 오차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지적공부는 과거 1910년 일제강점기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설정된 동경측지계를 사용함으로써 365m 가량의 편차가 발생하는 등 공간정보와의 연계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2014년부터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위해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5764점의 세계측지계 좌표를 관측하고 2021년 4월 도해지역 지

적공부 28만여 필지의 좌표변환을 완료한 바 있다.

이어 2021년부터 정밀함이 요구되는 수치지역의 좌표변환을 위해 104개 지구 3만9673필지의 자료조사 및 위치검증을 거치고 현장검증을 통한 검증측량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원지사와 협약을 통해 1억1000만원 가량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성과도 거뒀다.

시의 지적공부 기준 세계측지계 변환은 오차해소와 함께 과거 110년간 사용하던 동경측지계 측량 자료까지 청산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적공부가 세계측지계로 변환이 완료되면서 토지거래가 국제표준 좌표로 등록된 공간정보 등 각종 정보와 연계된 다양한 분야 지적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형 디지털 지적을 완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저탄소·채식식단 레시피 찾습니다

전북교육청, 다음달 17일까지 공모...환경급식 인식 전환

전북도교육청이 오는 11월 17일까지 '저탄소 및 채식식단 레시피 공모전'을 추진한다.

'나와 지구의 건강을 살리는 학교급식 레시피'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육류 위주의 식습관으로 발생하는 학생 영양불균형 문제 해소와 도교육청의 저탄소 환경급식 정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응모 주제는 ▲나의 건강과 생태환경을 생각하는 저탄소(채식)식단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맛있는 저탄소(채식)식단 ▲나만의 비법을 함께 나누는 즐거운 저탄소(채식)식단 ▲우리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저탄소(채식)식단 등 4개 분야다.

공모전에는 영양교사 등 학교급식 관계자뿐 아니라 교직원, 학생 등 전북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방법은 학교급식 관계자의 경우 식판 사진 1장과 조리과정 사진 4장 등 총 5장의 사진과 레시피를 작성해 공문으로 제출하고, 교직원 등은 완성된 요리사진 1장과 조리과정 사진 2장 이상 및 레시피를 이메일(yumi1656@jbedu.kr)로 제출하면 된다.

도 교육청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팀), 우수상 2명(팀), 장려상 3명(팀), 참가상 30명(팀)을 선정해 교육감상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고창농악한마당축제 대성농협 농악단 대상



김관영(왼쪽 두번째) 전북도지사가 우승팀인 대성농협팀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전통농악의 계승과 보존을 위한 고창농악한마당축제가 고창농악단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22일 모양성 앞 특설무대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5회를 맞는 농악한마당축제는 '제50회 모양성제' 축제 기간에 열려 수많은 관광객들의 관심 속에 진행됐다. 행사는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기관사회단체장과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려 지역 문화예술행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흥덕농협팀(흥덕, 신림, 성내), 상하장사농악단, 선운산농협팀(아산, 무장, 공음), 대성농협팀(대산, 성송), 해리해풍농악단, 고창부안농협팀(고창, 고수, 부안) 순으로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세계인류무형유산에 지정된 농악의 흥과 멋을 주민과 관광객에게 선보여 농악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렸다.

대상은 대성농협팀(조합장 박운규)이 차지했다. 일찌구상은 상하장사농악단, 아차상은 흥덕농협팀 등이 수상했고, 개인연기상으로는 정상기

(흥덕농협팀), 최보선(해리해풍농악단), 김병희씨(선운산농협팀)가 각각 수상했다.

경연대회 외에도 국가무형문화제 제11-1호인 진주삼천포농악보존회의 축하공연과 행운권 추첨으로 경연팀을 비롯한 축제에 참여한 많은 이들의 흥을 더욱 돋웠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고창모양성제 21만명 방문 '최고 흥행'

스탬프 체험 등 이벤트...MZ페스타 10·20세대 참여도 높아

'제50회 고창모양성제(19-23일)'가 축제 전체에 역사성·즐거움·아름됨을 이끌어 전국에서 21만여명(잠정치)이 다녀가며 역대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다.

축제 50주년을 맞아 고창군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깊어가는 가을 밤, 모양성을 배경으로 펼쳐진 환상적인 빛의 쇼는 단연 올해 축제의 하이라이트였다.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역사가 미디어파사드로 성벽에 연출되면서 아름다운 모양성의 특성과 축성공정을 보여줬다. 모양성 맹종죽림 안에서 펼쳐지는 제너레이티브아트는 음성의 계절 변화에 따른 음악연출을 통해 대나무 숲에서의 황홀한 야경을 선사했다.

특히 올해는 행사장이 모양성-자연마당공원-노

동저수지까지 확대되며 관광객들의 전체적인 체류시간이 길어졌다. 아름다운 가을 밤 고즈넉한 가을 정취를 느끼며 산책하는 달빛 기행도 호응을 얻었다.

처음으로 시도했던 성내 체험프로그램 '모양성에 가보니? 백투더 1453'으로 관광객이 직접 과거 의상이나 소품을 빌려 입고 참여하며 12곳의 스탬프 체험을 통해 모양성의 곳곳을 체험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즐겼다.

축제를 즐기는 연령대도 한층 젊어졌다. 고창읍 구도심(이조커피사거리)에서 진행된 청소년댄스 페스티벌을 비롯해 MZ페스타(힙합가수, 락밴드 공연) 등을 통해 10-20대가 마음껏 즐기는 모습에서 미래형 축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